



전북대병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연수강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 지역 병·의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전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연수강좌'를 개최하며, 지역 의료계의 항생제 사용 인식 제고와 관리체계 확산에 나섰다.

이번 연수강좌는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주관해 16일 열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 지역 병·의원 관계자와 전북대병원 소속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좌에서는 △성인 및 소아의 초기 경험적 항균요법 △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항생제 변경의 적절성 △해의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운영 사례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각 세션은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등 관련 분야 교수진이 맡아 강의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지역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항생제 내성 대응과 적정사용 관리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경찰서, 농기계 반사경 부착해 교통사고 예방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농기계 사용이 많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당마을을 방문,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교령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과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및 도로변 휴식행위 금지나 과적 금지 및 적재시 짐을 단단하게 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운행 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경운기 적재함 후방 등 야광반사지 또는 등화장치를 부착해 운전자들이 쉽게 농기계를 인식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순창경찰서 동계파출소,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전개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동계파출소에서는 지역 명품 반직판장 2개소 및 농가 등을 방문하여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밤 수확철을 맞이하여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농산물이 절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판장 관계자에게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될 수 있으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농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산물을 노상에 적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정읍시, 자매도시 중국 서주시와 25년간의 우정 다져

정읍시 대표단, 서주시 공식 초청 방문… 실질적 교류 확대·상호 협력 방안 논의 등

정읍시가 25년간 이어온 자매도시와의 우정을 다지고,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교류의 장에서 정읍의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도시 외교의 보폭을 넓혔다.

정읍시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서주시와 엔칭시를 방문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서주시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동행했다.

먼저 대표단은 지난 14일,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쑤이닝현 이동화 센터에서 열린 이 전시에는 정읍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걸려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선(평 서주시장, 왕귀창 비서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문화·교육·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대표단은 15일 엔칭시로 이동해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여 지역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16일 본회의 발표자로 나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정읍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장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숲터굴, 구절초 지방정원,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정읍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시장 원탁회의에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박일 의장은 협력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통해 교류 의지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서주시와의 25년 우정은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해 온 값진 성과"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도시 간 상호 발전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도시 외교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아산시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행사 실시

남원시는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With로봇 행사에 지난 17일부터 18일 2일간, 자매도시 충남 아산시 청소년들과 관계자 20명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7년 11월 결연 후 현재까지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월 아산시 초청으로 남원시 청소년이 아산시를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의 교류이며, 양 도시간 서로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아산시 청소년들은 17일 드론행사장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관람하고 △항공우주천문대 △화인당 한복 체험 △피오리움 관람 △서도역 △농촌체험 등 남원시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오수시장 일원 '임산부의 날' 캠페인 진행

임 실 군 이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임산부와 산모 그 가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오수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저출산율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모자 보건사업 안내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모유 수유 중요성 등에 대한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군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장류축제 기간 안전관리 활동 총력

순창소방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순창장류축제' 기간 동안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소방서는 화재 및 응급상황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방위적 안전관리 활동을 펼쳤다.

소방서는 축제 개막 전 유관기관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소방지휘본부를 운영하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55명, 소방차량 3대를 현장에 배치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아울러 소방서는 축제 현장에서 119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안전체험을 제공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